



경희대학교

2019학년도 오프라인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능계)

[6월 2일(토)]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인문·체능계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잘 알려졌듯이 바이킹들은 이미 1000년에 그린란드에서 돌아가는 도중 북아메리카를 발견하였고, 콜럼버스가 보았던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아메리카로 왔던 것이 틀림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는 그 이전이 아니라 1492년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인정받고 있어. ‘콜럼버스 이전’의 발견은 전 지구적 공간혁명을 야기하지도 않았고, 그 혁명의 과정 중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야.

100여 년 간의 이 전환기에 유럽인들은 모든 창조적인 정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공간 개념을 관철시켰어. 르네상스 회화는 중세 고딕 예술의 공간을 없애버렸지. 그때부터 화가들은 사람들과 사물들을 원근법적으로 텅 빈 깊이를 지닌 공간에 배치했어. 사람들과 사물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었지. 르네상스 건축은 고딕 공간과는 별도의 세계인 고전적이고 기하학적인 개념의 건물들을 만들어냈지.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은 인간 모양의 입상(立像)들을 공간 속에 자유롭게 세워놓는데, 이는 중세의 조각상들이 기둥과 벽에 ‘묶여’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야. 음악은 오래된 음조의 제약에서 탈피해 선율과 화음을 소위 음조직이라고 하는 청취공간 안에 배치했어. 연극과 오페라는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관객석과 막으로 분리되어 있는 무대 공간의 텅 빈 깊이 속에서 움직이게 했지. 이 두 세기 동안의 모든 정신적 흐름들, 즉 르네상스, 인문주의, 종교개혁, 반종교개혁과 바로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간혁명의 총체성에 기여했던 거야.

모든 삶의 영역과 존재 형태들, 예술, 과학, 기술 등 모든 종류의 인간 창조력이 이 새로운 공간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사실 우리의 행성에 대한 지리적 이미지가 크게 바뀐 것은 ‘공간혁명’이라는 이 파란만장한 단어가 암시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전초적인 측면일 뿐이야. 유럽인들의 합리적 우월성, 유럽의 정신 또는 ‘서양적 합리주의’라고 불려왔던 것들이 그 이후로 줄곧 거역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어. 그것은 서유럽과 중부유럽의 국가로 확장되었고 중세적인 인간 공동체 형태들을 파괴했으며 새로운 국가, 함대, 군대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계들을 발명해냈으며 비유럽 민족들로 하여금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었지. 비유럽 민족들에게는 유럽문명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인가라는 선택이 주어졌어.

[나]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한국의 계절은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지만, 이곳은 여전히 온화한 햇살로 가득하다. 사막을 연상케 하는 상앗빛의 거리에는 서로 다른 복장의 사람들이 걸고 있다. 히잡을 쓴 회교도 여인은 눈인사를 건네며 지나가고, 머리에 키파(Kippah),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쓰는 모자를 얹은 꼬마들은 책가방을 메고 골목 사이로 뛰어간다. 검정 옷에 구레나룻을 길게 늘어뜨린 정통 유대인은 무심한 표정으로 트램 정류장을 기웃거린다.

숙소를 나와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거대한 성벽이 시야를 가로막는다. 8개의 성문 중 하나인 자파 게이트(Jaffa Gate)에 들어서자 도시의 오래된 얼굴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올드시티는 유대인 지구, 무슬림 지구, 크리스천 지구, 아르메니안 지구까지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구역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새나 풍경도 다르지만, 이들 사이에 물리적인 장벽은 없다. 책장 넘기듯 살랑살랑 걷다 보면 자연스레 구역이 변화함을 느낄 뿐이다. 신비로운 아르메니안 구역을 가로질러 유대인 구역으로 진입한다. 돌담 위로 색색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거미줄처럼 엉킨 고즈넉한 골목들로 검정 코트와 증절모를 쓴 랍비들이 걸고 있다. 고대의 어느 날로 시간여행을 떠난 기분이다.

어느덧 발걸음은 유대교 최대 성지인 통곡의 벽(Wailing Wall)에 닿는다. 그 뒤로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황금 돔 사원(Dome of the Rock)의 모습도 보인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그리스도교인, 무슬림 모두에게 각별한 땅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 종교의 성지가 바로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올드시티의 모든 것들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과 종교 간의 전쟁은 수 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예루살렘은 모두에게 성스러운 땅인 탓에 모두에게 비통한 땅이 되었고,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평화를 갈망하는 땅이 되었다.

< 뒷면에 계속 >

[다]

음식은 하나의 문화적 요소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 세대로 전승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융합된다. 음식 문화는 주로 같은 민족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되지만, 지리상의 발견 이후 구대륙과 신대륙 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음식 문화도 함께 전파되었다. 신대륙 일부 지역에서는 유럽의 음식 문화와 원주민의 음식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멕시코의 음식 문화가 대표적이다.

신대륙은 옥수수, 감자, 콩,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의 원산지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멕시코 고대 아즈텍 문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원주민들의 식단이 호박이나 콩 위주의 야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스페인 군인들은 자국에서 들여온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와인, 마늘, 양파 등과 멕시코 일대에서 나던 재료들을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멕시코에는 초콜릿, 옥수수, 토마토, 바닐라, 아보카도, 파파야, 파인애플, 고추, 고구마, 땅콩, 생선류와 칠면조 등이 있었다. 오늘날의 멕시코 요리는 대부분 이러한 고대 역사에 입각하여 전통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아즈텍과 마야 문명이 일궈낸 음식 양식과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들어온 풍습이 동시에 섞여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음식인 토르티야는 옥수수를 가루 내어 반죽한 뒤 밀전병처럼 동그랗게 구운 것이다. 토르티야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먹는 타코는 멕시코의 음식으로, 최근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의 주식인 타코를 판매하는 한 다국적 음식 업체는 전 세계에 6,0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로 멕시코 음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파에야는 향신료인 사프란을 넣어 노랗게 물들인 밥에 새우, 조개 등 각종 해산물을 넣어 만든 스페인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스페인의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파에야의 재료가 되는 쌀과 향신료인 사프란은 과거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았을 때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전해져 온 것이다. 여기에 스페인의 풍부한 해산물이 더해져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파에야가 탄생하였다.

[라]

안개가
나뭇잎에 몸을 부빈다
몸을 부빌 때마다 나뭇잎에는 물방울들이 맺힌다
맺힌 물방울들은 후두둑 후두둑 제 무게에 겨운 비 듣는 소리를 낸다
안개는, 자신이 지운 모든 것들에게 그렇게 스며들어
물방울을 맺히게 하고, 맺힌 물방울들은
이슬처럼, 나뭇잎들의 얼굴을 맑게 씻어준다
안개와
나뭇잎이 연주하는, 그 물방울들의 화음(和音),
강아지가
제 어미의 털 속에 얼굴을 부비듯
무게가
무게에게 몸 포개는, 그 불가항력의
표면 장력,
나뭇잎에 물방울이 맺힐 때마다, 제 몸 풀어 자신을 지우는
안개,
그 안개의 입자(粒子)들

부빈다는 것

이렇게 무게가 무게에게 짐 지우지 않는 것

나무의 그늘이 나무에게 등 기대지 않듯이

그 그늘이 그림자들을 쉬게 하듯이

[마]

슈퍼마켓 한편에 놓인 간이탁자 주위에는 남자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바람이 이마를 건드리고 지나갈 때마다 소란스런 말 소리가 들려온다. 한국어에다 러시아어와 영어, 네팔어까지 뒤섞인 그 기묘한 말은 내 고막을 건드리는 순간 한국어로 바뀌어 머릿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온다. 그 중에는 쿤도 앉아 있다. 쿤이 나를 알아보고 손짓한다. 가까이 다가가자 오징어 다리를 잘라 내 손에 쥐여 준다. 머리카락이 빠져 정수리가 흰한 필용이 아저씨는 손사래 치며 취한 목소리로 말한다. “엄병, 그만들 해라. 니들 쌀라대는 소리 땀에 내가 꼭 너의 나라에 와 있는 거 같잖어. 니들, 이 나라가 워떻게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 줄 아냐? 옛날에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땐 손가락은 유도 아녘어, 팔뚝이 날아가고 모가지가 멍멍 멍멍 했으니까.” 아저씨는 곧게 편 손을 목에 갖다 대고는 세계 내려치는 시늉을 한다. “침엔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들이라 멋모르고 일했지. 하긴, 먹고살기 힘들 때였으니까. 인제 한국 놈들은 이런 데서 일 안 혀. 막말로 험한 일이니까 니들 시키지 존 일 시킬려고 데려왔간?” 옛날이 떠올라서인지 아니면 슬기운이 돌아서인지 아저씨 얼굴이 별것계 달아올

< 뒷면에 계속 >

랐다. “아무리 그래도 안전장치는 해줘야죠.” 세르게니가 오징어를 물어뜯으며 말한다. “너들도 자르면 피 나오고 누르면 똥 나오는 사람이다, 이거냐? 웃기는 소리들 마. 한국 놈들한테도 안 해준 걸 너들한테라고 해주겠냐? 아니꼬우면 돌아가. 젠장, 어차피 너들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공장 차리고 사장되려고 여기 왔잖냐. 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눈 똑바로 뜨고 배워 가. 다 산 교육이여.” 비아냥대는 필용이 아저씨 말에 쿤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자 이번에는 세르게니가 불멘소리로 대꾸한다. “아무튼 돈도 좋지만 우린, 사람 대우, 그거 받고 싶어요. 돈 벌어 고향 간다고 해도 삼 년 겪은 일 삼십 년 동안 악몽으로 남아 우릴 괴롭힐 거예요.” “맞아. 난 아직도 가끔 어릴 때 앞니 갈던 때 꿈을 꾴.” 손가락으로 앞니를 가리키며 산은 멧쩍게 웃는다.

[바]

우리가 ‘간다라 미술’이라고 할 때의 간다라는 페샤와르 분지뿐 아니라, 그레코·로만 양식의 조각이 출토되는 그 주변의 여러 지역, 즉 서쪽의 카불 분지와 잘랄라바드, 북쪽의 스와트, 동남쪽 인더스 강 동안의 탁실라 일대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때로는 옥서스 강 북쪽의 초원지대까지 간다라 미술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간다라는 인도의 관문이고 기원전 3세기 이래 인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도의 일부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곳은 문화, 풍토, 종족 등 여러 면에서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적 요소를 골고루 지니고 있었다. 간다라는 그러한 여러 지역이 만나는 점이(漸移)지대였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 같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곳은 일찍이 기원전 1500년경 인도에 유입했던 아리아인을 필두로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인도인, 중앙아시아 출신의 사카족, 쿠산족, 훈족(에프탈), 돌궐족의 지배를 번갈아 받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재(混在)하며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간다라 미술은 이곳에서 기원 전후부터 수세기에 걸쳐 변성했던 특이한 성격의 불교미술을 칭한다. 특이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미술의 주제가 대부분 인도에서 태동한 불교에 관한 것임에도, 그 조형 양식은 놀랍게도 주제와 전혀 이질적인, 서방의 지중해 세계에서 비롯된 헬레니즘·로마풍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동방의 종교 전통과 서방의 고전미술 전통이 기묘하게 결합된 혼성(混成) 미술이었던 것이다.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1,001자 이상 ~ 1,100자 이하 : 배점 60점]